

유통·화장품 한 주 파악잡기



Analyst 안지영 6915-5675 [jyahn@ibks.com] / RA 김진영 6915-5655 [jykim5316@ibks.com]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가성비”로 승부거는 “K-뷰티...”난공불락 日 화장품 시장 도전기 (아시아경제 17.11.26)

한국 화장품(K-뷰티) 브랜드들이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섬. 가성비를 앞세워 일본 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세대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와 대기업 LG생활건강은 일본 현지 소매점을 중심으로 쿠션 형태의 베이스 메이크업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일본 젊은층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하라주쿠 등 도심에 브랜드숍 에뛰드하우스를 운영 중임. 일본 화장품 시장은 공략하기 어려운 곳으로 꼽힘.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 쿠션 제품을 시작으로 변화가 나타남. 미샤의 경우 2015년 매직쿠션 제품으로 일본에 진출한 이후 2배의 매출 성장을 일궈냄. 유통방식을 도매로 변경하고 판매처를 확대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LG생활건강도 소매채널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일본에 유일하게 진출해 있는 자사 브랜드숍 더페이스샵을 통해 일본 최대 유통업체 AEON 리테일과 손잡고, 전국 200여개 매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사 색조 브랜드 에뛰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지난해 12월 도쿄 하라주쿠에 에뛰드하우스를 오픈하면서, 일본 젊은이들이 쉽게 한류를 접할 수 있게 함. 현재까지는 공격적인 사업 확대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며 가능성을 확인해나가고 있음.

“임대료 인하폭” 놓고 면세점업계-인천공항공사 갈등 재점화 (경향비즈 17.11.26)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불거진 임대료 갈등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제2터미널 개장이 불씨로 등장함. 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지난 23일 임대료 조정 방안에 대한 공문을 발송함. 2터미널 개장 영향 분석을 토대로 여객동 면세점 임대료를 29.5%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함. 면세점 사업자들은 임대료 인하폭이 턱없이 작다는 입장.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30% 수준의 임대료 인하는 매출 감소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 인천공항공사 측은 공항면세점의 경우 매출 감소가 크지 않고,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롯데면세점 측은 임대료 재협상을 할 수 없도록 한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임.

현대백화점그룹, 주요 유통그룹사 중 고용 가장 많이 늘려 (CEO스코어데일리 17.11.25)

현대백화점그룹의 지난 9월 말 기준 고용 규모는 1만12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849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30대 그룹에 속한 주요 유통그룹사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음. 롯데와 CJ그룹은 1.4%(846명), 4.2%(841명) 각각 증가했고 신세계는 0.8%(183명) 감소함. 올해 8월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 등 계열사 소속 비정규직 직원 23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함. 그룹 계열사 중 현대HCN 전체 직원은 42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1.2%(341명) 급증함. 자회사로 거느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5개사를 합병한 데 따른 것. 그룹 내 성장동력인 현대리바트도 경영 행보를 넓히면서 13.3%(57명) 고용이 증가함. 이어 △현대백화점 10.8%(257명) △에버다임 7.9%(32명) △한섬 7.5%(73명) △현대홈쇼핑 6.5%(34명) 순으로 고용이 증가함.

중국, 화장품 수입장벽 대폭 낮춘다 (한국경제 17.11.24)

중국 재정부의 다음달 1일부터 187개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평균 17.3%에서 7.7%로 인하한다고 24일 발표함. 해당 품목은 생수 화장품 식품 약품 건강보조식품 의류 신발 레저용품 일회용품 등. 생수는 20%에서 10%로, 향수 립스틱 치약은 10%에서 5%로 관세율이 절반씩 인하됨. 스키화를 비롯한 스키용품 관세율은 14%에서 7%로, 위스키는 10%에서 5%로 낮아짐. 매니큐어 등 손톱용 화장품 관세율은 15%에서 5%로, 화장용 브러시는 25%에서 8%로, 샴푸는 6.5%에서 2%로 떨어짐. 7.5%인 일회용품 지저귀엔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함.

“간편식 바람”타고 대형마트 식품 매출 60% 수준 회복 (헤럴드경제 17.11.21)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일배가공, 즉석조리식품을 모두 합한 대형마트 식품 부문매출 비중은 59.5%로 전년도 55.3%에 비해 4.2%p 증가함. 식품 매출 위주였던 대형마트는 2010년 이후 비식품 카테고리 강화하며 매출 비중을 2014년 46%까지 끌어올림. 그러나 최근 2~3년에 걸쳐 가전 및 가구 등 단가가 높은 카테고리에 대한 온라인쇼핑몰의 매출 잠식이 진행되면서 비식품 매출 비중은 40%대로 감소한 모습.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매출 수성이 용이한 식품 부문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 특히 간편식 매출 비중이 전년도 4.6%에서 지난해 7.1%로 크게 증가함.

대형마트 고객 고령화... “50대 이상 비중 늘고 20~40대 하락” (연합뉴스 17.11.21)

작년 대형마트 50대 이상 매출 비중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증가한 37%를 기록함. 반면 20~40대 고객은 1.5%포인트 하락한 63%였음.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의 50대 이상 고객 비중도 전년보다 1.2%포인트, 백화점은 5.2%포인트 각각 증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온라인·모바일 등 디지털 채널로의 젊은층 고객 이탈이 가속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50대 이상 고객 매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매출은 증가. 지난해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매출액은 전년보다 23.7% 증가함. 전년도 성장률(10.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

업종코멘트(11/27-12/1)

유통: 유통업은 전체적으로 2018년 내수경기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기저효과를 전망. 최근 긍정적인 업종지수의 상승 모멘텀을 반영함.

화장품: 화장품 업종 모멘텀은 4분기 실적보다는 2018년 1분기 실적 정상화에 우선 순위를 둘 전망.

표. 주간 Index 지표와 시가총액 증감률

지수	증가(pt)	주간 절대 등락률(%)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KOSPI	2,544.33	0.41	롯데쇼핑	-5.37	-12.06	-14.20	GS리테일	3.38	1.80	8.58
KOSDAQ	792.74	2.18	현대백화점	6.24	6.12	7.09	코웨이	0.00	-2.42	2.12
유통업	465.47	0.53	신세계	1.74	5.61	23.13	아모레퍼시픽	-2.85	-4.21	5.14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5.43	10.78	17.75	LG생활건강	-3.55	-4.18	3.36
KRW/USD	1,088.20	-1.44	롯데하이마트	0.28	-0.14	-3.74	코스맥스	4.24	-8.55	-10.22
KRW/JPY	978.29	0.22	CJ오쇼핑	0.15	0.15	6.34	한국콜마	0.63	-6.67	-0.87
KRW/CNY	165.08	-0.87	현대홈쇼핑	-0.81	-1.60	1.65	토니모리	-1.50	-4.15	4.24
			엔에스쇼핑	4.68	5.39	4.33	잇츠스킨	9.55	5.59	58.03
			GS홈쇼핑	0.22	2.55	5.73	클리오	-2.57	5.10	19.37
			BGF리테일	0.00	0.00	-6.83	코스메카코리아	0.00	-0.32	3.33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표. 글로벌 피어 추가 상승/하락률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시세이도	1.7	6.4	10.4	LVMH	0.9	0.1	3.3	월마트	-1.1	6.0	9.6
로레알	0.7	0.3	1.3	ULTA	-1.3	5.7	4.4	테스코	5.1	9.9	3.9
에이본프로덕츠	8.2	9.4	-7.1	노드스트롬	0.7	2.8	-1.1	타겟	-1.1	-6.4	-8.6
상해자화	-0.1	-0.4	2.1	맥스&스펜서	-0.9	-6.4	-13.3	까르푸	1.3	-4.3	-4.7
크리스찬디올	0.6	0.2	8.6	다카시마야	0.9	-2.4	-2.3	텐센트	3.7	8.6	20.4
P&G	-0.1	0.2	1.6	이온 물	2.4	-2.0	0.2	알리바바	2.5	1.8	9.3
고세	3.5	7.4	22.9	세븐&홀딩스	-1.3	-4.0	-3.3				
에스티로더	0.9	1.0	14.2	아마존	2.3	2.7	18.5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화장품 글로벌 피어	시세이도	로레알	에이본 프로덕츠	상하이 자화	크리스찬 디올	P&G	고세	에스티로더	LVMH	ULTA
현재가(USD)	47.45	221.05	2.10	5.65	358.40	88.33	154.25	125.84	294.58	212.30
시가총액(백만USD)	18,979	123,851	924	3,805	64,693	224,090	9,346	46,339	149,349	13,042
매출액 (백만USD)	2015 7,110 2016 7,840 2017 8,779 2018 9,143	28,036 28,597 30,804 31,909	6,161 5,718 5,753 5,839	922 793 843 950	42,195 46,411 49,612 53,707	70,749 65,299 65,058 66,944	1,900 2,029 2,468 2,671	10,780 11,262 11,824 13,110	39,587 41,617 49,636 52,540	3,241 3,924 4,855 5,878
영업이익 (백만USD)	2015 252 2016 339 2017 584 2018 693	4,724 4,385 5,525 5,754	165 322 312 355	118 28 68 97	7,218 8,557 N/A N/A	11,049 13,441 13,955 14,892	207 289 362 419	1,606 1,610 1,692 2,184	7,101 7,638 9,562 10,525	410 506 655 813
순이익 (백만USD)	2015 308 2016 296 2017 78 2018 438	3,660 3,438 4,418 4,673	-1,149 -108 18 86	352 33 61 84	2,860 1,022 3,409 2,658	7,036 10,508 15,326 11,138	110 156 200 246	1,089 1,115 1,249 1,554	3,966 4,406 5,793 6,383	257 320 410 520
PER (배)	2015 25.3 2016 36.8 2017 294.4 2018 43.5	26.2 31.2 27.9 26.4	N/A 68.5 700.0 10.9	11.9 84.7 64.5 46.2	13.2 38.7 28.4 24.2	19.2 22.5 22.4 21.2	31.4 33.5 26.5 35.6	30.3 28.8 25.9 30.2	20.4 22.9 25.5 23.0	32.8 36.1 41.0 25.4
ROE (%)	2015 9.3 2016 8.2 2017 1.1 2018 11.8	15.1 12.9 14.7 14.5	N/A N/A 7.4 -130.8	46.4 3.9 7.3 9.3	21.4 8.3 22.0 18.4	10.5 17.5 27.8 19.3	9.1 13.0 13.9 16.4	29.0 30.9 31.4 33.4	15.5 15.7 17.7 17.9	22.9 23.8 27.4 31.0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P&G, 고세, 에스티로더, ULTA는 2018년 수치만 추정치. 자료: Bloomberg

유통 글로벌 피어	노드 스트롬	맥스& 스펜서	다카시 마야	이온 몰	세븐& 홀딩스	아마존	월마트	테스코	타겟	까르푸	텐센트	알리바바
현재가(USD)	41.16	3.97	9.42	18.21	40.20	1,156.16	96.41	2.58	57.49	19.85	53.58	189.84
시가총액(백만USD)	6,857	6,453	3,348	4,142	35,629	557,121	287,996	21,134	31,250	15,377	508,997	486,209
매출액 (백만USD)	2015 13,506 2016 14,437 2017 14,757 2018 15,327	16,644 15,914 13,882 14,274	7,887 7,177 7,962 8,323	1,889 1,904 2,496 2,584	46,289 40,548 42,978 53,818	107,006 135,987 177,098 227,992	485,651 482,130 485,873 498,536	92,606 81,684 74,106 76,207	72,618 73,785 69,495 71,089	88,145 87,190 94,139 96,606	16,371 22,880 36,104 49,835	12,302 15,912 23,531 36,920
영업이익 (백만USD)	2015 1,323 2016 1,101 2017 805 2018 950	1,132 881 331 865	297 273 314 314	388 364 416 443	3,181 2,920 3,372 3,459	2,233 4,186 3,447 6,489	27,147 24,105 22,764 22,722	-9,354 1,624 1,348 2,015	4,535 5,530 4,969 4,273	2,429 2,190 2,397 2,602	6,052 7,971 12,341 15,568	3,735 4,578 7,145 10,845
순이익 (백만USD)	2015 720 2016 600 2017 354 2018 496	785 613 153 602	209 198 193 202	227 204 264 262	1,603 1,334 895 1,669	596 2,371 5,671 8,012	16,363 14,694 13,643 13,307	-9,339 209 -53 1,116	-1,636 3,363 2,737 2,490	1,088 826 991 1,116	4,585 6,188 9,820 12,726	3,917 11,242 6,493 12,914
PER (배)	2015 20.3 2016 14.6 2017 13.6 2018 14.0	17.8 16.4 46.8 10.6	16.9 13.3 16.9 16.3	21.5 14.8 13.8 15.5	23.4 24.7 40.2 21.1	537.8 152.7 99.3 71.8	17.0 15.1 15.4 21.7	N/A 56.8 234.6 18.8	17.4 15.4 12.7 12.7	19.7 21.6 14.5 13.4	41.2 38.7 51.7 39.7	66.5 55.3 47.1 37.4
ROE (%)	2015 31.9 2016 36.2 2017 40.7 2018 57.1	16.5 12.2 3.5 13.7	5.9 6.0 5.1 5.4	7.9 7.4 8.3 8.2	7.9 6.9 4.1 7.9	4.9 14.5 9.6 14.3	20.8 18.1 17.2 16.6	-52.7 1.8 -0.5 11.0	-10.8 25.0 22.9 22.6	10.4 7.4 8.0 8.2	28.8 27.9 30.7 29.8	27.6 39.4 17.6 19.9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아마존, 까르푸, 텐센트 외 종목은 2018년 수치만 추정치. 자료: Bloomberg